

☐ 연구 논문

기독교 영적 치료와 심리치료의 통합

강경미(M.D., 그리스도신학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현대 심리치로나 정신의학적 치료법들이 발달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데 있어 심오한 철학과 방법,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풍부한 말과 지혜와 방법이 있어서 예수님을 위시하여 수많은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이 훌륭한 심리치료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불구하고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 하에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또한 현실 생활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종교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감정적인 편견과 함께 배제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과 종교, 동양과 서양의 상호관계가 가까워지면서 21세기는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향적인 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¹⁾ 이러한 경향은 일반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의 분야에까지 미치면서 심리치료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 신체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체계적

으로 입증되면서부터 현대의학에서도 동양의학이 중시하고 있는 심신의학(Psychosomatic Medicine)이나 총체성의학(Holistic Medicine)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 또한 오늘날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성이 다시 복귀하면서 종교와 의학의 분리의 벽은 무너지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을 변화시켜 질병치료와 건강에 종교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³⁾ 특히 근래에는 의사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면서 의학과 심리학, 종교와의 조화를 통한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전체 기능 중에서 심신의 측면과 영적인 면을 분리시키는 것은 아주 인위적이며 잘못된 작업이 될 것이다. 종교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의 성경에는 인간의 질병과 치유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영적 치유에 관한 놀라운 실험적 증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반복되는 기도나 종교적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성이 고조되면서 강박적인 사고나 관념을 변화시켜 생리적 이완반응과 함께 질병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⁴⁾ 따라서 21C는 과학과 종교의 상호관계가 더욱 근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마음과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의 치료를 열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신학과 심리학의 이론적 통합은 물론 기독교적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도 통합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모델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 신학과 심리학의 이론적 통합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그 가능성을 믿으며 추진하고 있는 Gary R. Collins(1997)는 현대 심리학의 전제와 가정들이 기독교의 기본과정과 직접적으로 상충된다는 비판에 반(反)해서, 기독교적 전제 위에 세워진 심리학은 일반계시로서 학문적으로 정당하며 행동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콜린스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중요한 지적인 도전으로

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유익성, 가능성을 인정하는 신학자와 심리학자들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학문에 있어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기독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⁵⁾

1. 심리학의 성경적 기초

행동과학이 “성경의 권위아래 선다”는 말은 인간에 관한 모든 연구와 자료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특히 심리학의 주제, 즉 인간의 속성과 인간관계, 삶의 문제는 성경의 주제와 광범위하게 겹쳐지기 때문에 성경이 심리학에 대하여 많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심리학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인간학에 근거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타락한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인간을 영과 육, 혼이 통합된 하나의 전인(wholeness)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⁶⁾ 또한 심리학이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초자연적인 존재와 영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시험하는 기본적인 자원이며 또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심리학의 연구와 활동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심리학이 성경의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신학과 심리학은 함께 서로의 질문들에 답변 할 수 있으며 인간연구의 관점과 결론들을 공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⁷⁾

2.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가능성

신학과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비슷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독특한 두 개의 분야로 모두 무수한 가정과 가설, 사실, 접근방법, 결론들을 포함하는 지식의 총체이다. 그러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일반계시)의 진리들은 계시된 진리(특별계시)와 모순되거나 상반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1) 심리학은 인본주의적, 자연주의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가치관과 가정 및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2) 신학과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선함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관점에서 일치한다.

3) 심리학과 신학 모두 인간의 행동과 가치관, 인간관계, 삶의 자세, 불안, 질병, 결혼, 가족, 고독, 낙심, 슬픔, 염려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 안에서 일치한다.

4)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진리, 즉 의학이나 물리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과 같은 학문을 세우고 배우도록 허락하셨다. 따라서 심리학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게 되면 하나님 진리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게 된다.

5) 심리학의 세속적인 요소 즉 불확실성, 상대성, 암시성, 자율성은 과학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제한된 문제이며 신학의 한 부분에 속하게 된다.

6)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심리학의 유전론, 결정론을 배제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론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7) 성경은 모든 심리학적 행위들이 집중되는 학문의 핵심으로 성경에 의해서 심리학적 이론과 기법들은 검증되어야 한다.

3.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목적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 아직까지는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때로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와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불구하고 두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는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게 되면 인간의 존재와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와 변화, 그리고 인간

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합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학과 심리학이 함께 하나님의 진리(특히 인간)에 대해 더 확실하고 위대한 발견과 이해를 하기 위함이다.

2) 신학과 심리학의 통로를 열어놓고 인간의 존재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함이다.

3)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으로 사람들을 영적이고 심리학적인 전인(whole being)으로 이해해서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4)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된 이론과 방법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서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이다.

4.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접근법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하나로 통합된 심리학이나 신학의 이론은 없다. 하지만 두 학문의 전제와 가설, 연구방법 등 통합되어야 할 요소와 또 통합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최근에 시도된 심리학과 복음주의 성경적 신학의 통합접근법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접근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⁹⁾

1) 부인하는 접근법

Paul Tournier는 심리학과 신학 모두 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청과 위로, 상담, 지도하기 등의 방법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학과 신학은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두 학문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과 반대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부인 또는 무시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2) 철회접근법

신학과 심리학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같은 줄로 연

결되어 있지만 멀리 지평선에서 만나게 되는, 즉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만나게 되는 두 개의 철로와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심리학적 용어와 신학적 용어가 함께 정리되어야 하며 또한 병행이상의 의미 즉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의미를 찾아서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면서 합일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통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3) 분석수준 접근법

높은 수준의 범주(신학)에서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다루고 비교적 복잡한 관점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수준이 반드시 하위수준(심리학)의 관점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위의 관점들은 하위수준으로부터 검토될 수 있으며 또한 하위 것들을 포용하기 때문에 신학과 심리학이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놓고 각각 연구, 분석해서 두 학문이 이해하고 동의 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4) 통합된 모델을 통한 접근법

신학은 인간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언어적, 개념적, 문화적인 매체로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과 또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에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기계적인 작용과 그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다. 그러나 신학에는 심리학의 본질과 특성, 그밖에 각 영역에서 통합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광범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의 기본적인 원리들과 내용들은 신학의 영역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5) 강탈 접근법

던져진 샐러드(tossed salad) 접근법이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먼저 성경이라는 여과기를 통하여 성경을 대적하는 세속적 심리학의 요소들을 뽑아낸(강탈)후에, 개인의 입맛에 따라 다양한 혼합물 속에 들어있는 심리학과 신학의 비슷한 개념을 취하여 적당한 동의작업

을 거쳐 서로 제휴하게 한 다음에 한정된 틀 안에서 통합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6) 재건접근법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또 아주 근본적인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접근법이다. 이 모델의 특징은 심리학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신다는 신학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심리학의 원리와 가설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작업을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Ⅲ. 기독교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의 실제적 통합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칠 때 그의 사랑과 봉사의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인간의 겪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궁극적인 해결은 인격이 변화하면서 자기 안에서 성숙과 풍요를 추구하며 인생에서 최고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는 수단으로도 매우 중요하다.¹⁰ 또한 예수님의 치유와 심리치료 모두 인간 전체의 대한 건강함을 목표로 하는 전인치유의 개념으로 양립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먼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심리건강과 질병의 성경적 이해

1) 심리건강의 성경적 개념

기독교 관점에서의 심리건강의 개념은 구원이고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그러므로 심리건강은 바로 구원이며, 인간과 환경, 생활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으로 이는 바로 자신과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한다.¹¹⁾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전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지속할 때만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와 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건강은 성령에 의해서 영위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온전히 기능하는 질병 없는 몸으로 인간의 구성요소인 사람과 환경, 그리고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서 강건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에 충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¹²⁾

2) 심리질병의 성경적 개념

성경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원죄(창 3:16-19), 노쇠함(창 48:1, 10),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레 26:15, 16), 부모의 죄(삼하 12:15), 부주의한 실수(왕하 1:2), 탐심(왕하 5:27), 우상숭배와 음행(대상 21:13-15), 사탄의 시험(욥 2:7), 소망을 이루지 못함(잠13:12), 상심(잠 18:14), 사랑함(아 2:5), 하나님의 계시(단 8:27; 10:15-19), 술(호 7:5), 하나님의 계획(요 9:1-3; 11:3,4), 하나님의 섭리(고후 12:7), 헌신과 과로(벧 2:25,26)로 기록¹³⁾하고 있다. 또한 질병과 죽음을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사탄의 행위로 간주했으며, 이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자리잡게 되고 그 영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면서 육체의 질병과 죽음이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창3:1-10; 롬5:12). 그러므로 질병은 즉 ‘하나님의 법’ 과 ‘자연의 법’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한 인간에 있어서 영, 육, 혼의 부조화와 세상의 모든 관계가 무질서 상태가 된 것이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은 없으며 이 모두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¹⁴⁾

3) 기독교 영성과 심리건강

신체의 기관으로 간주되는 마음은 육체가 생활하는 자리로, 정서, 즉 기쁨(신 28:47)과 슬픔, 분노, 고통(렘 4:19), 화평(잠 14:30), 염원(신 19:6)등이 표현되는 자리이다. 또한 마음은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자리 잡는 곳이기도 하며(잠 10:20-32), 동시에 이해와 지식의 자리로 이성적인 힘과 능력의 자리(렘 14:14)가 되기도 한다. 또한 마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경건한 태도, 또는 불순종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경배와 예배의 자리로 (삼상 12:24 ; 렘 32:40) 하나님께로 전향이 일어나는 곳도 바로 이 마음 속이다(시 51:10~12, 17, 19).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신실하고 건강하며(사 51:7), 불경건한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완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사 29:13).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을 얻어 강하게 되면 인간 전체가 소생하게 되며(창 18:5; 사 19:5; 왕상 21:7)질병으로부터 해방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¹⁵⁾

최근 조사된 신앙과 심리건강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96%가 신이나 보편적 영의 존재를 믿으며 그 중 90%가 기도를 하고 43%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교회에 출석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60세 이상 된 노인 중에서 교회 활동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사망 위험율이 낮았으며, 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0%이상이 신앙은 자신들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¹⁶⁾ 또한 심리건강에 대한 신앙적 열심을 연구한 사례 중에서 대 다수가 긍정적인 유익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실제로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정신 질병이나 술과 마약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적었다. 특히 생리적, 감정적 적응이 양호해서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염려, 그밖에 다른 정신질환이나 의학적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낮았으며 생존의 가능성도 높아서 사망률도 낮았다.¹⁷⁾ 따라서 신앙은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및 극복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강화,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치료의 성경적 이해

인간의 속성은 초월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 자유와 구속, 온전성과 파괴성, 창조와 혼돈의 혼합물로 인간의 불안과 갈등은 선천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적 불안과 운명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오직 기독교 영적 치유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구원을 통한 영생의 소망과 함께 자유롭게 실존적인 삶을 살아 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Augustine은 “인간 본성에 있어 사람은 질병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다. 인간의 정신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결합된 전체로 죄와 질병은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영적 치유는 믿음의 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의 병을 어루만지고 경감시켜 주는 살아있는 종교적 체험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원으로, 온전한 건강과 치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¹⁸⁾ 그리고 영적 치유의 중심인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능력으로 한계가 없으며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보다 신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은 크게 욕구와 정서, 성격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통제, 조절하는 심리치료의 기본 요소로 영적, 신체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 욕구의 성경적 개념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성경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빌 4:6, 19) 하나님은 안전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롬 5:8, 8:35, 39) 하나님은 사람의 중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시 103:4, 빌 1:21, 엡 2:10)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에서 건강의 개념인 구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욕구충족에 필요 불가결한 분이시며 또한 개개인의 모든 욕구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심리학의 인본주의 학자 Abraham Maslow(1967)에 의하면 육체적이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필요)는 단계별로 가장 낮은 생물학적 욕구에서부터 심리 사회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욕구인 자아실현(self actualization)은 신앙의 실천적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성경 역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며, 영적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개인에게 주신 가치와 속성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와 희생하는 일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¹⁹⁾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철저히 돌보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하며, 또한 인간의 건강한 삶은 이 믿음 안에서 최선의 단계인 영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 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Fish와 Shelly(1970)는 이러한 인간의 영적 욕구를 하나님과의 역동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헌신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는 바로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용서의 근원을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지속에 필요한 믿음과 노력이 결핍된 영적 갈망상태라고 설명했다.²⁰⁾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영적 욕구는 본질적인 것으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영적 치유를 통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서의 성경적 개념

정서(emotion)는 인간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흥분된 상태로 경험에 의해 반응으로 표출되며,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 내적 상태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나타나는 개인의 특정 정서인 우울이나 불안, 흥분, 공포, 분노는 정도에 따라 심리적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때로는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심리치료자와 정신의학자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장애는 우리가 앓고 있는 각종 질환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모든 질병의 약 70% 이상이 정서문제에 연유되고 있다.²¹⁾ 인간의 정서질환의 대부분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에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심리적 혼란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개인적인 성숙과 능력이외에도 영적 가치관을 확립해서 인간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애정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에게 선한 삶의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생활의 불안이나 염려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슬픔이나 분노,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한다. 또한 신앙교육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 때 정서적으로 안위를 받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²²⁾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의 정서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본인의 감정과 기분을 다스려서 심리적 긴장과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일반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그들의 환자 앞에 설정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3) 성격의 성경적 개념

성격은 개인이 타인과 환경에 반응하는 특정한 양식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및 행동방식이다. 유전적, 환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성격을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제시된 개념을 보면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역시 유한하지만 인격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혼(psyche)과 영(soul, spirit)은 바로 인격의 핵심이다. 따라서 인간의 개인적 성격(individuality)은 하나님과 동질적인 것이며 사람은 인격의 통합을 얻기 위해 영성을 추구하게 된다.²³⁾ 또한 인간의 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심리학의 이론과 체계를 검토하면 인격이 반드시 심리학의 영역에만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인 갈망과 요구는 바로 인격의 내부에서 발생하며 또한 인간은 단지 인격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종교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²⁴⁾ 그러므로 인간이 심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기를 초월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실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서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습의 얼굴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성격도 각 개인마다 다르게 주셨다. 이를 개성(個性)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좋은 성격과 신앙으로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좋지 못한 성격을 함께 주셨다.

R. Cramer(1995)는 인간의 성격을 영적으로 재건(再建)할 필요성²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죄와 악, 금지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자아(self)의 도전으로 피조물(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하여 창조주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거부한다. 그 결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질서는 무너지고, 인간은 상대적이고 제한된 의존성만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인간이 임의로 스스로를 절대적이고 독립된 존재로 격상시키면 자신의 근원과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내적인 유대관계가 깨어지게 되며, 동시에 인간은 자신을 하나의 거대한 존재로, 그러나 뿌리를 잃은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본래의 사랑과 믿음이 사라진 파괴적인 이기주의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의 성격특성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개성화 되고 안정적이며 그리스도의 윤리성을 갖춘 성격으로,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고히 하여 성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을 바르게 지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3. 기독교 영적 치유의 대안적 의미로서의 심리치료

영혼을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성경적 이미지는 목자의 개념으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상한 자를 보살피 주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겔 34:3-16).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인 영혼돌봄의 사명을 잘 수행해내지 못할 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양의 무리를 먹이며(겔 34:15), 어린양을 품에 안고(사 40:11), 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시 23:2). 한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양의 무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선한 목자로 묘사되고 있다(요 10:11-16). 이와 같이 기독교 치유사역에서 중심이 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돌봄은 아주 독특하고 심오한 형식인 영적인 거듭남(renewal)과 영적 평안(repose)이며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남(birth)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진실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성장과 함께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새사람으로 구원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영적인 평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마음의 쉬를 얻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심신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혼돌봄의 행위가 종교의 영역에서 의학과 심리학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세기 초 과학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종교의 타락이다. 따라서 심리치료는 종교가 쇠퇴하면서 발생한 영적 돌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대체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영혼치료는 병든 마음에 대한 치료로 전환되었으며, 더욱이 마음(mind)에 의해 빼앗긴 영혼(soul)은 뇌의 기능으로 간주되는 행동(behavior)으로 바뀌면서 정신치료는 의학적인 행위(medical act)로 생각하게 되었다.²⁶⁾ 그러나 과학을 통해 제거하려고 했던 자연의 신비나 또는 인간의 오묘함 등의 종교적 속성은 심리치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치료의 목적은 충족되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욕구들(metaphysical needs)을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 했다. 이에 대해

Szasz(1978)는 주장하기를 헌신과 고백, 기도, 회개, 믿음, 내적인 결단 등의 종교적 요소들은 오늘날 심리치료의 기본적 속성과 방법으로 심리치료의 경우에도 그 종교적 뿌리와 영적인 특성들을 영원히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Pattson(1977)은 현재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적 치료법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대부분이 인간의 종교적 유산을 무시한 사실로부터 기인된 것이며, 이는 곧 정체감의 위기로 본래 그 목적했던 영적 치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²⁷⁾

4. 기독교 영적 치유의 방법과 심리치료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치유의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말씀, 안수, 기도, 믿음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4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고통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치유의 시작이며, 두 번째 단계는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질병의 과정으로 손상된 이전의 심신의 구조와 기능, 그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영적으로 변화된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²⁸⁾ 그러므로 질병의 치유와 건강은 온전함과 생명, 그리고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로 기독교의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²⁹⁾ 그러므로 영적 치유와 통합된 기독교적 심리치료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된 자기(ture selves)인, 영(spirit)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격려하는 것이다. 핀치(Finch & Dragt, 1985)는 이것을 영적 탐구(spiritual quest)의 과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즉,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을 위한 탐색으로 진정한 나(real me)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위한 노력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비로소 온전히 치유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⁰⁾ 따라서 영적 치유의 요소인 신앙적 열심과 믿음, 기도, 회개는 인간의 영을 계발하고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심신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

라 또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긴요한 형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1) 영적 치유의 신앙적 요소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삶의 희망과 의미, 목적을 주는 것은 바로 종교적 신앙이다. 따라서 종교적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이 적으며, 근심이 적어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자살율도 낮다. 또한 깊은 종교심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술, 마약, 담배나 위험한 성적 행동에 덜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교회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폭 넓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앙적 현신이나 기도, 회개 등의 종교적 실천과 믿음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 마음에 의지와 희망, 힘과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활과 함께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심리치료의 효과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 신앙의 현신도: 성경에 나타난 건강의 기초는 믿음, 소망, 사랑이며 이는 신앙적 현신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발표된 신앙의 현신도와 심리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조사자의 92%가 신앙이 심리건강에 유익하다고 보고했으며 해롭다고 보고한 경우는 겨우 4%로 신앙적 현신이 임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23배나 많았다.³¹⁾ 또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사람에 비해 자살율이 4배 정도 높았으며, 제 7일 안식일 교인들은 일반사람과 비교할 때 평균수명이 남자는 9년, 여자는 4년 더 장수했다. 그밖에 교회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치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을 덜 느끼며, 정신질환에 걸릴 비율도 낮았다.³²⁾ 이는 신앙적 현신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심리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기도: 기도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은 하나님의 예지와 중보

가 인간 삶의 생명력이라는 견해로, 성경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4-15),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 4:2)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있어서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본래적 영성을 깨닫는 것이며, 셋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병의 고통이나 상해로 깨어지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기도는 사람들의 강박적 사고나 관념을 없애지게 하고 생리적 이완반응을 일으켜 의학적 증상을 완화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성도 고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와 같이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심신의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연구결과, 미국의 성인 1004명 중 82%는 기도의 치유능력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64%는 만약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들은 환자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서는 질병을 다루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91%가 기도라고 보고했으며, 환자들 가운데서 기도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회복이 빨랐다.³⁴⁾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개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도구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이어져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치유되기도 한다.³⁵⁾

(3) 믿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구체화하는 헌신적 실행 즉 세례, 성만찬, 봉사는 고통과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치료가 된다. 모세는 치유하시는 통치자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에 완벽한 치료를 하실 수 있으며,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픈 자를 강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을 회복시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다.³⁶⁾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치유의 기적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아

래서 어떤 순간에도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모든 질병과 죄의 근원이 된다.³⁷⁾

미국 가정 주치의(조사대상 269명)중, 99%가 영적 믿음이 의학적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³⁸⁾ 또한 워싱턴주의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과 믿음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장질환이나 간경화, 결핵, 인후암, 기관지염, 또는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나 자살 등이 거의 없었다.³⁹⁾ 이 외에도 예배에 자주 출석하는 사람은 예배에 가끔 출석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또한 깊은 종교적 믿음은 자기를 초월한 영생의 소망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봉사로 이어져서 한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도 연관되어 있다.⁴⁰⁾

(4) 회개: 회개는 보다 나은 인생행로로 진입하겠다는 각오가 포함된 노력을 뜻한다. 회개에는 죄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거짓과 죄악 됨을 슬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나은 행동 유형으로의 개선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울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순수한 슬픔과 반성에서 나오는 향상된 영적 상태에서 표출된 것이다.⁴¹⁾ 성경에 나타난 회개의 결과는 죄사함 받음(신 4:29-31; 말 3:7),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시 51:12,1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됨(시 51:17), 영이 소생케 됨(사 57:10), 구원받음(사 59:30),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마 3:8)이다. 따라서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은 죄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부정적인 영향과 자기만족의 결핍상태에서 하나님의 두려움과 책망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회개는 인간의 생활을 새롭게 창조하고 미래에 대해 건설적이어서 정신건강을 향

상시켜 주는 매우 건전한 경험이기 때문이다.⁴²⁾

(5) 사랑: 사랑은 선한 의지로(요일 4:1-16)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것이고(고전 13:1-13; 요일 4:8)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다(요일 4:16). 또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요일 3:14),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으며(요일 4:18),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벧전 4:8), 모든 재물보다 나은 것으로(막 12:33)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고전 13:13). 이러한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갈 때 그의 치유력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원수를 위한 사랑이었다. 따라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에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에 있으며 인류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죄의 사슬로부터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⁴³⁾

Gordon Allport(1952)는 “건강의 가장 위대한 치료인자로서 널리 알려진 이 사랑은 전문적인 정신의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접합시킬 수도 없으며, 방출시킬 수도 없는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생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심리치료사나 의사들이 ‘사랑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공급할 능력도 없고, 환자가 되돌려 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받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사랑을 받고 주고자 하는 인간본성의 측면에서 종교는 심리요법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다.⁴⁴⁾

5. 기독교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의 통합영역과 모델

심리치료(psychotherapy)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때는 19세기말이었으며 이 때의 의미는 최면이나 연상작용과 같은 심리적 방법에 의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Baldwin(1957)이 그의 저서 「철학과 심리학 사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치료의 방

법은 심리학적이었으나 궁극적인 심리치료의 목표는 인간전체의 변화로 전인치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구하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이 심리치료의 심리학적 방법과 목표를 강조하면서 “심리치료는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장애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심리학적 수단들(Bergin, 1979)”이라고 정의했다.⁴⁵⁾ 그러나 현대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치료이론과 방법들이 임상에서 한계와 문제에 당면하면서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치료 의사들이 인간을 육체와 정신, 영적인 측면을 가진 전인적 존재로 보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마음의 치료에 영적 치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인 목사나 교회지도자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병든 사람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의 체계와 기독교적 영성치유의 전통을 함께 통합시키려는 작업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또한 몇몇 기독교 심리학자나 상담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1) 영성 치유와 심리치료의 통합영역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영적 은사들을 주셨으며 이 은사 중에 하나가 ‘신유’로 병을 고치는 은사이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질병과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해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의사나 목사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치료자들도 불러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⁴⁶⁾ 따라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이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 학자들은 성경의 핵심이론(구약, 신약, 조직사학, 성경해석학, 변증학, 윤리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심리학의 이론(생물학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개별행동의 기초)과 함께 심리치료에 관한 지식과 실제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6가지 영역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인격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⁴⁷⁾

(1)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 지역교회와 교회유사단체들이 심리건강과 상담에 관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마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교회 안과 또는 밖에서 효과적인 치유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

(2) 목회사역으로 도와주는 일: 목회자나 성직자들은 전문 상담자들 보다 접근하기 쉽고 수적으로도 많으며 신뢰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성직자에 의한 기독교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성도들의 문제해결이나 정신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다.

(3) 평신도 또는 동료로써 도와주는 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은 단시간 내에 매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평신도 심리치료사, 또는 상담자들은 전문가들보다 부담없이 쉽게 동료들을 도와 줄 수 있다.

(4) 심리학적, 변증법적 방법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일: 과학의 결론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의 종교다. 따라서 심리학적 주장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인 변증학(기독교의 진리를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학문)에 의하여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간존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5) 개방적으로 도와주는 일: 자신의 도움을 비인격적인 책이나 혹은 설교의 한정된 말속에서 구하는 대신에 문제들을 개방적인 조력자, 즉 친구, 목사, 혹은 전문 심리치료사나 상담자와 의논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방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성경적인 기초 위에 심리학의 확고한 이론들을 접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성경주의에 탈의존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측면에서 도움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6) 예방적으로 도와주는 일: 영적 치유나 심리치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결혼생활 속에서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은퇴, 이혼, 죽음과 같은 미래의 위기를 예견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은 점점 어렵고 복잡해 가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 반해서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이 삶의 의문과 모호성을 경험하게 될 때 확고한 응답과 의미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유일한 접근법은 두 가지를 접목해서 개인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 현실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2)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의 통합모델

인간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 형상(Imago Dei),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설명함에 있어 영(spirit)이란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또한 인간에게만 있는 이 영은 자기초월적이고 자유롭고, 신뢰 할 수 있으며 인간의 특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다.⁴⁸⁾ 종교심리학자 Carl G. Jung(1986)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격 내부에 숨어있는 신과 은밀하게 관계하며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 안에 있는 종교적 요소들을 ‘무의식의 신’이란 의미로 정의했다.⁴⁹⁾ 또한 Victor E. Frankl(1979)도 ‘무의식의 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이런 신과의 관계는 인간의 본성에 이미 종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⁵⁰⁾ 그러므로 현대 과학이 인간의 영적인 요소를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신앙심은 인간의 본성이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존재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한 영적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지식과 심리학적 지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성 모델인 전인치유와 성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 전인치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질병과 고통의 문제는 수평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죽음, 절망,

무의미, 허무에서 기인하는 불안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불안의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 자신들의 진실한 속성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상황’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은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독교에서의 치유(heal)의 개념은 세속적인 의미로서 “신체의 병이 나옴”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인간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살전 5:23, 히 4:12). 그러므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질병의 상태이며 또한 인간의 깨어진 형상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를 포함한 전인치유의 개념으로,⁵¹⁾ 건강과 치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며 또한 건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⁵²⁾ 따라서 통합모델에서의 전인치유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실한 속성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몸과 정신, 영혼이 창조 당시의 모습과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다.

(2) 성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성인 성결은 사람들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는 바로 ‘이 생에서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은혜와 사랑,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⁵³⁾ 그러므로 진정한 성결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단순히 죄의 구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으로 그 이웃들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성결은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성결한 삶의 실천으로는⁵⁵⁾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 것(삼상 12:23)과 있는 것으로 구제하기를 힘쓸 것(눅 11:41),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킬

것(살전 4:2-8),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딤후 4:7), 정욕을 피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을 것(딤후 2:22), 말씀을 통하여 항상 자신의 행위를 살펴볼 것(딤후 3:16, 17), 주 앞에서 항상 겸비할 것(약 4:10),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쓸 것(벧전 1:22), 범죄했을 때에 즉각 회개할 것(요일 1:9), 이웃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 볼 것(요일 3:16-18) 등이다. 또한 성결하게 해야 할 대상⁵⁶으로는 몸과 의복(출 19:10, 14),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대하 4:6), 행실(시 119:9), 교회(엡 5:26), 이성간의 관계(딤후 5:2), 양심(히 9:14; 10:22), 죄인의 손(약 4:8),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마음(약 4:8), 영혼(벧전 1:22) 등이 있다.

IV. 통합의 문제점과 제안

신학과 심리학은 비교적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분야로 완전히 일치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많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복잡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대해 Pascoe(1980)는 심리학의 “철학적인 토대”를 고려하고 또 심리학적 사상과 기독교적인 사상과의 통합을 통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을 정립하게 되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⁵⁷ 또한 Collins는 심리학은 만능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과의 통합을 통해 성경적으로 기초한 심리학을 건설해야만 인간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⁸ 이와 같이 심리학과 신학이 학문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면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기독교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의 통합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1) 언어와 학술용어의 문제

신학자들이 심리학의 용어를 이해하고 심리학자들이 신학적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과 신학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사용되는 전문용어나 개념들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동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개선되어야 한다.

2) 종교로서의 심리학의 문제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유익하며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이 기독교와 같이 종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경은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원천이 되어야 하며 심리학으로부터 나온 결론은 성경의 개념에 의해서 점검받아야 한다.

3) 전인치유 계획안에서의 통합문제

심리학을 사회과학에서 빼내어 신학의 범주에 넣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며 유익하지도 않다. 그러나 심리치료 이론이 지니고 있는 철학적, 신학적인 기초는 인식해야 하며 또한 영적 치유에 심리학적 자원과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4) 통합은 누가 할 것인가?

통합자는 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선의 통합은 헌신된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또한 훈련받은 심리학자이어야 할 것이다. 미래에 있어서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와의 통합은 주로 심리학을 공부한 신학자들과 기독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5) 무엇을 통합 할 것인가?

신학과 심리학은 인간과 연관된 비교적 복잡한 분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논쟁을 일으킬만한 주제들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인 자료를 연구하는 일에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학문적인 연구에서 나온 오류들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밖에도 심리학적 변증법으로 심리치료의 가설과 이론들을 논리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며 또한 실

제적으로 연관성 있는 주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2. 미래 통합을 위한 제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은 인간과 사회의 건강과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마태는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수가 전도하시고(**preaching**), 가르치시고(**teaching**), 치료하셨다(**healing**),”라고 기록했다.(마 4:23)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됨을 목적으로 전도하시고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했다.⁵⁹⁾ 특히 예수님은 육체적, 심리적, 영적 문제로 인한 모든 종류의 병을 치유하셨으며 치료와 예방, 건강의 증진과 회복의 과정에서 통합적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통합적이었으며 건강과 성장을 위한 통합성은 선교와 치유사역의 기본원칙이었다. 그러므로 미래의 기독교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의 통합자는 먼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신학과 철학, 심리학에 관한 학문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존재에 대한 정확한 견해와 인격에 대한 잘 정의된 심리이론을 정립하고 있어야 하며, 인간의 존재와 부적응에 대한 충분한 심리치료 이론과 함께 훈련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심리학과 신학의 자료들을 무조건 양편에 도입하거나 강제로 통합하는 것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이론으로 통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바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개발해야 할 것이다.

V. 맺는 글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창 1:27)피조물로, 몸과 마음(정신)과 영을 분리할 수 없는 전인(Whole being)(살전 5:23; 히 4:12)으로서의 영적 존재(Spiritual being)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

적(spiritual)'이란 말에는 5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의미 이외에도 인간의 단결력, 인간의 총체, 도덕적인 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신비성과 복잡한 마음의 면모에는 반드시 영성의 의미가 들어 있으며 예수님의 치유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건강과 치유의 최종적 목표는 영적인 것이다. 마음의 궁극적인 평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질병과 문제를 극복하는 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은 오직 영성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다.⁶⁰⁾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치유방법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말씀, 안수, 기도, 믿음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은 영과 육체와 정신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신비한 직관으로 병을 진단하시고 치료하셨다. 중풍병자에 대해 예수님은 나타난 증상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병의 근원에 접근해서 예수님은 환자의 중풍이 그의 죄에 대한 마음의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셨다.⁶¹⁾ 그러므로 인간의 정서와 성격, 행동을 개선하는 심리치료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는 수단으로도 매우 요긴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는 즉 기독교상담자나 치료자는 심리치료의 매체를 통하여 내담자들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심리 치료와 영적 치유는 양쪽 다 모두 선(善)과 성취, 성숙, 풍요를 추구하며, 인생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그 목표가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것이다.⁶²⁾ 따라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와 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인치유와 성결을 통해 은혜와 사랑,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심리학의 이론적 통합은 물론이고 기독교 영적 치유와 심리치료의 합리적인 통합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 타당성 있는 통합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후 주 *

- 1) George Gallup, "The Epidemiology of Spirituality,"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97), 11.
- 2) 이인혜, 「정신생리학」 (서울: 학지사, 1999), 314.
- 3) Harold G. Koenig, "The Effect of Religion on Health: What the Science Has to Say,"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77), 24.
- 4) Marlin J. Schitz, "The Faith Factor: Is Religion Good for Your Health," *Spirituality Healing Medicine-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97), 21-22.
- 5) Gary R. Collins, 이종일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서울: 솔로몬, 1997), 10.
- 6) Collins, 42.
- 7) Millard Sall, 김양순 역 「성경과 심리학의 조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93.
- 8) Collins, 32-33.
- 9) Collins, 23-39.
- 10) Sall, 208.
- 11) 강경미, "PNI & E System과 21C 치유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ACTS 치유선교학과, 1999), 56.
- 12) 이명수, 「치유선교론」 (서울: 나임출판사, 1995), 20-21.
- 13) 제자원, 「그랜드 종합교리」 (서울: 성서교재, 1997), 777.
- 14) 이명수, 17.
- 15) 강경미, "영성의 심리적 영향과 치유," 제4회 치유심포지엄 발표논문, 2000, 23-24.
- 16) Dale, A. Matthews, Harold, G. Koenig, & David B. Larson, "Spirituality and Medicine Outcomes,"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97), 21-22.
- 17) Koenig, 23.
- 18) 이명수, 48-49.
- 19) Abraham H. Maslow, "Self Actualization and Beyond," In Bugental, J. F.(ed) *Challenges of Humanistic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967), 402.
- 20) Sharon Fish & Judith Allen Shelly,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70), 38.
- 21) Raymond L. Cramer, 정동섭 역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21.

- 22) Cramer, 21-23.
- 23) David G. Benner, 이만홍·강현숙 역 「정신치료와 영적탐구」(서울: 하나의학사, 2000), 165.
- 24) Benner, 160.
- 25) Cramer, 13.
- 26) Benner, 40.
- 27) Benner, 41-42.
- 28) 이명수, 57-58.
- 29) 안명현, 「신유(초자연치유)와 자연치유」(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석사논문, 1996), 23.
- 30) Benner, 112.
- 31) Jay Hollman, 박재형 역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300-301.
- 32) Marilyn J. Schlitz, “The Faith Factor: Is Religion Good for Your Health,”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77), 21-22.
- 33) Harris V. S. “Christian Science Spiritual Healing Practices,”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77), 66-67.
- 34) Harris, 16-19.
- 35) 안명현, 30.
- 36) Rabbi Simkha Y. & Weintraub, C. S. “Jewish Spiritual Healing Practices,”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77), 50-51.
- 37) Arther K. 김경섭 역 「영적 치유」(서울: 프리셉트, 1996), 274-275.
- 38) Bevery Romanovski, “Belief in Healing,”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77), 95.
- 39) 제자원, 783.
- 40) David G. Myers, “The Pursuit of Personal and Well-Being: What Role for Spirituality?,” *Spirituality Healing in Medicine IV* (Boston: Harvard Medical School, 1977), 29-31.
- 41) Cramer, 63.
- 42) Cramer, 66.
- 43) 강경미, 28.
- 44) Gordon Allport, *The Individual and His Religion*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52), 80.
- 45) Benner, 17.
- 46) Sall, 180.
- 47) Collins, 48-57.
- 48) Benner, 97.
- 49) Carl G. Jung, 설영환 역 「무의식의 신」(서울: 선영사, 1986), 223.
- 50) Frankl, 정대현 역 「무의식의 신」(서울: 분도출판사, 1979), 69-70.
- 51) 임옥분, “PNI & E SYSTEM을 통한 감정상태의 약리학적 고찰 및 치유사역에서의 적용”,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석사논문, 1994), 5.

- 52) Daniel E. Fountain, 김창용·강경미 역 「전인치유의 하나님」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9), 106.
- 53) Collins, 144.
- 54) 제자원, 「그랜드 종합교리」 (서울: 성서교재, 1997), 1037.
- 55) 제자원, 1034.
- 56) 제자워, 1033.
- 57) Pascoe, J. P. "An Integrative Approach to Psychological and Christian thought based on a Christian World View,"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8(1980): 12.
- 58) Collins, 146-160.
- 59) Fountain, 215-216.
- 60) Sall, 21.
- 61) 박윤수, 「치유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성기획, 1994), 113.
- 62) David G. Myers & Malcom A. Jeeves, 박원기 역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7), 190-191.

